

# Adam Smith의 동감(Sympathy)

## 사회의 작동 원리 규명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이혁우 교수

2022. 5. 12.

아담스미스는 "완전한 존재"가 판단하는 "원리"에 대한 탐구와 "인간과 같이 너무 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이 실제 사회에서 판단하는 원칙에 대한 탐구를 구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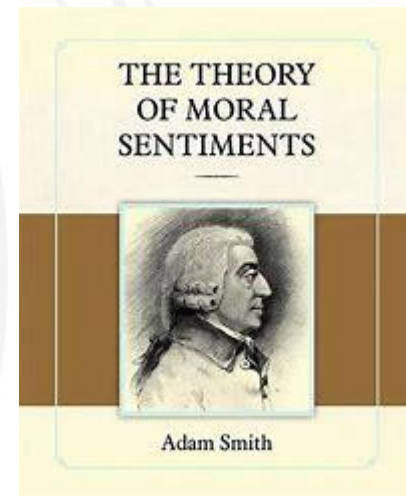
그는 어떤 초월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인류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립하기 위해 「도덕감정론」을 쓴 것이다.

#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Adam Smith**의 첫 출판,  
**1751**, 글래스고 대학 교수 시절  
평생을 두고 개정(**6판, 1790년**)

사회의 조화를 위해 충분한  
인간의 심리적 도덕적 조건에  
대한 관심

시민법과 정부가 번영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탐구



# Critics to B. Mandeville's Argument

인간의 사회성이란 능력 (**Sociability**)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일 뿐(**B. Mandeville**)

## Three Critics from 18's Scottish Sentimentalism

- **F. Hutcheson:** 인간은 원래 자선적 성향이 있음
- **D. Hume:** 인간의 동정은 전염됨
- **A. Smith:**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닌 미덕에 대한 사랑, 자신이 미덕이 있는 사람이 바라는 욕구 (자선을 사회성의 근거로 삼는 주장을 반박)

# Sympathy, D. Hume vs. Adam Smith

(공통점)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감의 과정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호적 감정으로 변화시킴

## D. Hume

- 동감은 항상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둔감한 생각이라도 그 인상만으로도 동감이 작동함(contagion theory, 전염이론)
-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외부적 신호"(즉, 얼굴 또는 기타 행동을 통한 감정 표현, 예를 들어 T 2.1.11.3 참조)를 관찰할 때마다 그런 감정에 대해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감정 자체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A Smith

- 머리 속의 상상을 거쳐 출현하는 것으로 언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님

# Moral Sentiments vs. Natural Sentiments

## Moral Sentiments

- 사회제도나 관행으로부터 축적된 감정(Cultivated feeling)
-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상황에서 만들어 짐
-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그래서 동감의 과정을 열망함
- 우리 인간은 동감능력을 가진 까닭에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운"에 "관심을 갖는다."(TMS I.i.1.1).

## Natural Sentiments

-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원형의 감정(uncultivated feeling)
- 사회에 대한 방관자 조차도 갖고 있는 감정, 욕구
- 예) 욕구, 혐오, 즐거움, 슬픔

# Moral Sentiments의 세 가지 내용

1. 욕구: 혐오, 즐거움 등

2. 열정을 자극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생각

3. 인간 내면의 관찰자에 영향을 받는  
자신에 대한 감정

→ 도덕감정은 **2.**에 의해 사회적이 되고,  
**3.**에 의해 규범적이 됨

# Moral Sentiments

## Moral Sentiments는 Social Passion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의 본질적 부분으로 만들어 주는 인간본성의 사심 없는 측면이 있음
-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대를 포함하는 감정이란 측면에서 규범적 임

*만약 어떤 개인을 한 사회로 들여오면, 그의 열정은 곧 새로운 열정의 원인이 되고, 이중 몇몇에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역겨워 할 것*

## Sympathy

- 동정심(compassion, 라틴어 *συμπάθεια*의 번역, 즉 동료(*συμ*), 느낌(*πάθεια*)이 합쳐진 말)과 같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감정이든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감정(fellow-feeling)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도덕감정론 I. i .1.5)



# Sympathy의 유형(by Leonidas Montes)

## 과정으로서의 Sympathy

-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상황에 놓아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운(fortune)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냉정하게 생각하게 된다.
- 그래서 상상에 따른 걱정은 원래의 걱정보다는 훨씬 약하다. 즉 사람들은 그들 앞에 마주하게 되거나, 그들이 그 걱정<sup>에</sup> 의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다 솔직하고 공평하게 보게 된다. (도덕감정론, I.i.4.8).
- 동감은 단순히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welfare)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동감이 우리 머릿속의 상상을 통해 그들의 관점, 상황, 삶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 Adam Smith 이론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것이다.

# Sympathy의 유형(by Leonidas Montes)

## 결과로서의 Sympathy

- 사람 사이 마음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열정 (passion)의 경험 (그 열정의 강도는 동감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 이 열정을 공유하는데 따른 더 큰 즐거움(예, 도덕감정론 I ,i.2.2.).
- 동감의 즐거움은 부수적인 쾌락효과가 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을 개선하고 기쁨을 북돋아 준다.
- 두 사람 사이의 서로 동감이 있다는 사실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즐거운 것들이 동기부여의 잠재성을 갖는 한, 그것은 이미 사회적인 힘이 된다.
- 상호동감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승인을 표현한다는 사실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형태, 즉 애정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거래에서 행위자와 관찰자는 상호일치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 Sympathy의 작동조건

“다른사람을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느정도 우리 스스로 평안해야 한다.”(도덕감정론, V.ii.9.).

- 권력과 운에서 극심한 불평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민감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 상업사회에 대한 그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도덕적 기능을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아담스미스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지고, 평가되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관찰자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자신에게 보다 냉정한 관점을 채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Spectator in mind

## Moral Sentiments의 적합성과 적절성에 대한 정확하고 뚜렷한 척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열정이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안의 관찰자가 그들의 행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과 같다. 거꾸로 말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의 관찰자가 그것들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TMS I.i.3.1).

우리 안의 관찰자는 자신이 이런 일치를 인식한다고 생각하면서, “상호동감(mutual sympathy)”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상호동감의 즐거움은 우리 안 관찰자의 승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세 번째의 열정(a third passion)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자가 느끼는 “두개의 감정”은 “사회의 조화를 위해 충분한 만큼 서로 일치할 수는 있다. 이것들이 결코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는 않겠지만 조화될(concord)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상호동감을 위해 필요한 전부이다.”(TMS I.i.4.7)

# Impartial Spectator

## Moral Sentiments의 적합성과 적절성에 대한 정확하고 뚜렷한 척도

우리는 곧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그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동의 받을 만한지 그들에게 보여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정과 행동을 점검하게 되고, 그것들이 만약 그들의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 질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열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 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려고 노력한다(도덕감정론, Ⅲ.1.5).

# Impartial Spectator

## Moral Sentiments의 적합성과 적절성에 대한 정확하고 뚜렷한 척도

“우리는 공평하고(fair) 공정한(impartial) 관찰자가 점검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상황에 놓아보고, 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모든 열정과 동기로 완벽하게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안의 공평한 재판관이 내리는 승인에 동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의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 그 결과 비난하게 된다.”(TMS III.1.2).

# Self-Deceit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아담스미스는 특히 우리는 행동하기 전과 후, 이기적인 열정(passion)에 의해 스스로를 매우 편파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도덕 감정론 Ⅲ.4.1-3)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기만(self-deceit)이며, 이것이 인간사의 무질서를 설명하는 절반의 원인은 될 거라는 데 의심하지 않으며(도덕감정론 Ⅲ.4.6.),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두 사람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도덕감정론 Ⅲ.1.6.)

공정한 관찰자는 적절하게 공정하고, 적절하게 무관심하고(그러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님), 적절하게 거리를 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자신 안에 상상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그는 “우리”의 동감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인 것이다.

# Adam Smith as great thinker

아담스미스는 특정한 도덕문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도덕감정론, V.2.15). 또한 국부론 IV.i.32, 국부론 Ⅲ.iii.8). 그는 좋은 판단에 대한 어떤 한 지역의 표준(기준)이 인류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 그러나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항상 다른 존재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대함과 의식적인 미덕은 모든 인류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CAS 40).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개념이 있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판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의 내재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 Praise-worthiness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즉 사랑의 자연스럽고 적절한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TMS III.2.1).

적절한 상황에서라면, 칭찬받을 만하다는 우리의 경험은 칭찬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야말로 중요한 개념적 요소이다.

모든 인간은 어린 시절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욕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아담스미스는 사람이라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런 칭찬받을 만하다는 경험은, 사회에서 도덕문제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 기준을 형성시키는 요소임

# Virtue and Character

현명하고 미덕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다. 훌륭한 도덕적 판사가 되는 것은 엄격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성"이 가르치는 것처럼 "다수 중의 한 사람"일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TMS III.3.4). 지혜와 미덕은 또한 "소박한 겸손함(humble modesty)과 공평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TMS I.iii.3.2).

아담스미스는 "현명하고 미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사적 이익이 그 자신의 특정한 질서에서 혹은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고도 했다(TMS VI.ii.3.3).

현명하고 미덕이 있는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중시한다. 이것은 현명하고 미덕이 있는 개인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위대한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어한다.

# Modern Human Nature as the real cause of self-coordinated Society

Adam Smith는 우리가 사회에 " 정말 적합(really fit) "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다.

자연스럽고 활기찬 상상 속의 동감이 작동하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의 냉정한 관찰자의 판단에 민감하게 되고, 그 결과 단순히 칭찬받을 만해 보이거나 미덕이나 도덕이 있어 보이는 외양에만 만족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로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미덕을 갖추고, 도덕적이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사회에 "정말 적합"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Implications

1. 자유인의 출현 이후, 각자 개성을 갖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통적인 왕과 같은 전제적 지배구조가 없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질서가 이전과는 다른 번영을 만들어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사회(제도, 규범)을 만들어야 할까?

- Adam Smith에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명이 가장 첫 번째 과업

- 상호동감의 인간이 조화를 갖는 규범, 정의의 덕, 호혜의 덕

- 정의의 덕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 정부

- 개인의 최소조건을 보장하는 주체, 정부

- 그러려면, 분업에 기반한 시장을 통한 자원의 무목적적 재분배를 보장해야

2. Two interpretations of Invisible Hand

- 재분배의 원리이자, 번영의 원리,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 재산권, 거래비용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concentric, semi-circular arcs in shades of grey and light green. The lower half of the image is a solid green gradient. The text '감사합니다.' is positioned in the lower right quadrant, overlaid on the green background.

**감사합니다.**